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석사 학위논문

외국인 거주지 분화현상에 따른 수도권  
내 외국인 주거지 선택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foreigners  
residential choic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Residential Differentiation of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계획전공

주 수 현

외국인 거주지 분화현상에 따른  
수도권 내 외국인 주거지 선택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정 창 무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계획전공  
주 수 현

주수현의 석사 학위论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 초록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 간의 인구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2030년 외국인 수가 320만 명으로, 총인구 중 6.1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현재 한국에 형성된 외국인 밀집 주거지가 고밀화되거나 확장될 것을 시사한다. 외국인 이주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는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타 이민족의 경우 밀집 거주지 형성과정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 이주는 현재 형성된 밀집 주거지와 다른 형태의 거주지를 형성할 것이며 이에 따른 갈등 및 사회적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타 이민족과 달리 외국인 밀집 주거지 분화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6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인 수도권이다. 먼저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거주지 선택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제공하는 등록외국인 수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요인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시 고려한 설명변수로는 주민등록인구, 종사자 수로 대변되는 산업 설명변수, 월세가구 비율, 공시지가로 대변되는 주거환경 설명변수, 2011년 기준 등록외국인 수로 대변되는 외국인 관련 설명변수, 그리고 기대임금, 인구 100명 당 다문화 가구원 수로 대변되는 한국계 중국인 특수성 설명변수가 있다.

수도권 64개 시·군·구의 등록외국인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대소득이 높을수록, 인구 100명 당 다문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등록외국인 수가 많을수록, 월세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제조업 종사자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에 한국계 중국인이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경우, 월세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인구 100명 당 다문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등록외국인 수가 많을수록 중국인이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요인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계 중국인 특수성 설명변수로 설정한 '기대임금'은 한국계 중국인에게는 유의미했으나 중국인에게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국계 중국인은 이러한 특수성을 이용하여 이주목적인 경제적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구 100명 당 다문화 가구원 수'는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에 모두 양(+)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등록외국인 수(2011년)' 또한 양(+)의 영향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등록외국인 수'를 '개인 이주'의 분화형태로 '다문화 가구원 수'를 '친족 및 지인 네트워크'의 분화형태로 판단한다.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인구 100명 당 다문화 가구원 수'의 영향력은 0.666, '등록외국인 수(2011년)'의 영향력은 0.077이며 중국인의 경우 '인구 100명 당 다문화 가구원 수'의 영향력은 0.418, '등록외국인 수(2011년)'의 영향력은 0.811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정주 욕구가 높은 한국계 중국인은 '임시거주지'의 특징을 가진 거주지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지에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한국에 정주하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국인은 한국계 중국인보다 정주 욕구가 낮을 것이다. 이들은 유학, 단기 체류, 관광 등의 비자를 통해 이주하며 자신들의 이주목적을 이루거나 해당 비자의 기한이 만료된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정주'를 위한 거주지보다는 자국의 민족들이 모여 있는 '임시주거지' 특징이 강한 거주지가 중국인이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해석된다.

두 가지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와 같은 민족성과 언어를 가진 한국계 중국인은 타 이민족보다 빨리 외국인 밀집 주거지 분화과정을 겪고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요인과 함께 자신들의 민족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거주지를 선택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거주지로 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계 중국인은 '중국'이라는 같은 국가통치 아래 생활한

중국인 이주민과 거주지를 공유하고 있으나 같은 거주지에 살더라도 그들이 해당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 주거지 분화기 초기 단계를 겪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한국계 중국인’이라는 특정 외국인 집단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들의 특수성에 의한 거주지 선택요인을 규명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된 한국계 중국인의 단편적인 생활 양상을 파악한 후 변수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한국계 중국인의 생활을 모두 대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6년을 기준시점, 즉 단편적인 시간 흐름을 통하여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 영향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른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 영향요인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및 기존 선행연구에서 규명하지 못한 주거환경(교통, 주택 유형 등)이 어떤 영향을 주고 그들이 선호하는 주거환경은 어떤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주요어** :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 분화, 거주지 선택, 외국인 밀집 주거지

**학 번** : 2016-21275

# 목 차

##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1.1. 연구의 배경 .....	1
1.1.2. 연구의 목적 .....	4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5
1.2.1. 연구의 범위 .....	5
1.2.2. 연구의 구성 .....	6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1. 외국인 밀집 주거지 .....	9
2.1.1. 관련 선행연구 고찰 .....	10
2.2. 인구이동 및 국제이주 .....	14
2.2.1. 인구이동 .....	14
2.2.2. 국제이주 .....	15
2.3. 거주지 선택요인 .....	17
2.3.1. 관련 선행연구 고찰 .....	17
2.4. 거주지 분화 .....	21
2.4.1. 관련 선행연구 고찰 .....	22

### 제3장 한국계 중국인 이주 및 거주지 현황과 특성

3.1. 한국계 중국인 이주 및 거주지 현황 .....	26
3.1.1. 한국계 중국인 이주 .....	26
3.1.2.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 현황 .....	27
3.2.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 특성 .....	29
3.2.1. 가리봉동 .....	29
3.2.2. 대림동 .....	30
3.2.3. 자양동 .....	32
3.2.4. 소 결 .....	33

### 제4장 연구문제 및 가설 설정

4.1. 연구문제 .....	36
4.2. 연구가설 설정 .....	38

### 제5장 연구의 틀 설정

5.1. 분석대상 및 범위 .....	40
5.2. 분석자료 .....	41
5.2.1. 분석 자료의 구성 .....	41
5.2.2. 설명변수의 구성 .....	42
5.3. 분석의 흐름 및 방법 .....	45
5.3.1. 분석의 흐름 .....	45
5.3.2. 분석 방법 .....	46



제6장 연구결과

6.1.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거주지 유사성 및 특징 ..... 49

6.2.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 53

    6.2.1. 거주지 선택 영향요인 분석 ..... 53

    6.2.2.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분석 ..... 57

제7장 결 론

7.1.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61

7.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 62

    7.2.1. 연구의 의의 ..... 62

    7.2.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63

참고문헌 ..... 64

Abstract ..... 70

## 표 목차

표 1. 외국인 밀집거주지에 관한 선행연구 .....	12
표 2. 거주지 선택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	19
표 3. 거주지 분화에 관한 선행연구 .....	24
표 4. 수도권 내 한국계 중국인 밀집거주지 .....	28
표 5.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 특성 차이 비교 .....	33
표 6. 분석의 대상 및 범위 .....	40
표 7. 분석 자료의 구성 .....	41
표 8. 분석변수 구성 .....	44
표 9. 등록외국인 수 및 거주지 선택영향요인의 기초 통계량 .....	53
표 10.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 .....	54
표 11. 중국인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 .....	56
표 12. ‘다문화가구원 수’ 및 ‘등록외국인 수’ 영향요인계수 .....	58

## 그림 목차

그림 1. 외국인 거주지 분화(2009년, 2016년) .....	3
그림 2. 연구의 흐름도 .....	8
그림 3. 외국인 밀집지역의 발전단계 .....	21
그림 4. 총 외국인 수 대비 한국계 중국인 수 .....	27
그림 5. 가리봉동 ‘조선족 거리’ .....	29
그림 6. 대림동 ‘중국인 거리’ .....	31
그림 7. 자양동 ‘중국인 타운’ .....	32
그림 8. 분석 흐름도 .....	45
그림 9.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 거주지 분포(2016년) .....	50
그림 10. 2016년 체류자격별 외국인 수(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 ..	51

# 제 1 장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1. 연구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노동력부족 및 인구부족의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구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화로 인한 국제이주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인력자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김홍배 외, 2008), 외국인 집단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점차 많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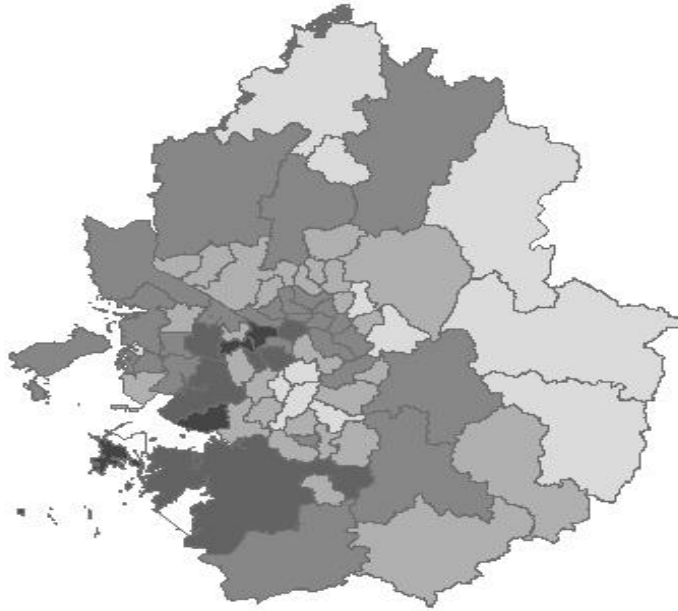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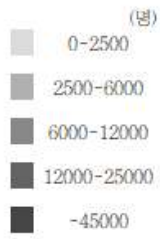
행정안전부는 ‘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sup>1)</sup>현황’을 발표하고 2016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176만4664명이라고 밝혔다. 1년 전보다 3.1% 증가한 규모다. 외국인 주민 수는 조사가 처음 진행된 2006년 53만6627명에서 10년 새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만 외국인 주민의 60.6%가 집중되어있다.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64개 지역으로 나타난다<sup>2)</sup>. 법무부는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이어지면 2030년 외국인 수가 320만 명으로, 총 인구 중 6.1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현재, 시·군·구에 위치한 65개의 외국인 밀집주거지가 고밀화되거나 확장되는 과정이 심화될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1) 외국인 주민은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 등을 포함한다.

2) 2016년 11월 기준, 외국인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자치단체는 65개에 달하는데, 2006년 8개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매년 6개씩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밀집주거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외국인 거주지는 이미 도시 곳곳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이진영, 2011). 거주지 중 일부는 주류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형성되지만, 일부는 차별화된 그들만의 거주지는 형성하여 거주지 분화 및 도시구조 변화를 일으킨다. 외국인 거주지는 해당 지역의 사회적·경제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이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9년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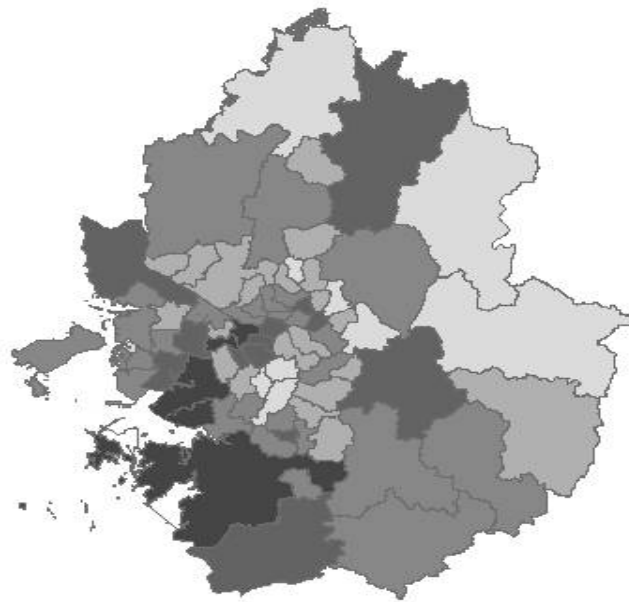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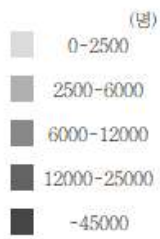


그림 1. 외국인 거주지 분화(2009년, 2016년)

## 1.1.2. 연구의 목적

“일반적으로 외국인 밀집주거지 형성 단계가 개인 이주 → 가족 및 친족 네트워크 형성 → 공동체 및 경제 인프라 구축 → 영구 정착지 형성 및 소수 민족의 정치화 과정을 겪는다고 본다(박세훈, 2010),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외국인 커뮤니티가 유입기 → 밀집기 → (대규모로 확장하는)포화기 → (부근에 새로운 작은 규모로 형성되는)분화기를 겪는다고 할 때,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앞서 4단계인 분화기의 초기 단계라고 보기도 한다.”(홍성기 외, 2010) 외국인 밀집주거지 형성 단계에서 가장 먼저 분화기를 겪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은 2007년 방문취업제도 시행과 함께, 우리나라로 이주가 증가하였다. 현재 국내 거주 한국계 중국인은 615,000명으로 전체 거주 외국인 중에서 3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계 중국인의 국적은 중국이나 그 뿌리는 한국이다. 즉, 한국의 문화를 일부 공유하고 있는 중국인이다(박재영 외, 2016).”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계 중국인은 우리와 문화적 동질성이 높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등 타 이 민족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 또한, 주류사회에 대한 정주 욕구가 높고, 타 이민족보다 높은 소득 및 부의 축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타 이민족들과 달리 한국계 중국인은 분화기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장 뚜렷한 특징을 드러내는 거주지로는 입국 초기의 정착지인 가리봉동, 통로(Portal)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림동, 가장 주류사회에 적응한 형태로 판단할 수 있는 자양동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3개의 거주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분화기 초기 단계의 외국인 밀집거주지로 진입한 한국계 중국인이 자신들의 거주지를 선택할 때,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1.2.1. 연구의 범위

우리나라의 외국인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전국 단위 분석은 보다 구체적인 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는 전체 외국인 중 약 60%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였다. 자료 구득 및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수도권 시·군·구 66개소 중 인천광역시의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등록외국인 수를 포함하는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연보는 1960년부터 매년 공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공개된 2016년도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가 어떤 이유로 분화해왔는지를 공간적으로 분석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인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인 가리봉동, 대림동, 자양동의 기존 연구를 통하여 분화의 배경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거주지 분화의 영향요인 분석은 관련 자료 구得的 어려움 등으로 인해 2016년 단일시점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분석대상 외국인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한다.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특정 거주공간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sup>3)</sup>는 외국인으로 보기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이진영, 2011).”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외국인 밀집지역과 관련된 이론 고찰,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에 관한 연구, 외국인 밀집지역 분화과정, 현재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및 중국인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 정의하고 있다.

요인 분석, 그리고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의 영향요인과 중국인 거주지의 영향요인 간 비교로 설정한다. 연구는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 형성과 관련된 문헌연구와 거주지 분포 현황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 거주지 분포와 다양한 변수 간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진행하였다. 관련 통계자료는 각 지자체 통계사이트 및 통계연보, 법무부 통계자료 등을 통해 취득하였으며, 기초적인 통계 분석을 위해 STATA 12.0을 활용하였다.

### 1.2.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한국계 중국인의 특성이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로서 총 7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관하여 서술하며(1절), 전체 연구에 있어서 세부적인 연구의 범위를 밝히고 연구의 구성에 관해 서술한다(2절).

제2장은 본 연구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진행하는 부분으로서, 외국인 밀집주거지의 개념 정립(1절)과 인구이동 및 국제이주에 관한 이론(2절), 거주지 선택요인(3절), 거주지 분화에 관한 논의(4절)의 순서로 구성되며 각 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다.

제3장은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현황(1절)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존재하는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특성(2절)에 대하여 고찰한다.

제4장은 실증적인 연구내용에 앞서 연구 대상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1절), 제2장에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을 도출한다(2절).



제5장은 실증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모형을 설계하는 단계로서 연구의 대상과 그 범위(1절),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설명(2절), 분석의 흐름 및 방법(3절)에 대한 설명 순서로 서술한다.

제6장은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서술하는 장으로서 먼저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의 거주지 유사성을 밝힌다(1절). 통계 분석을 통하여 제4장에서 도출한 연구가설의 유의미성을 확인한다(2절). 이후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요인과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요인 간 비교를 통해 한국계 중국인이 가지는 특수성이 문화적·사회적 유사성을 가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요인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만드는지 확인한다(3절).

제7장은 연구의 결론으로서 분석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한다(1절).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한다(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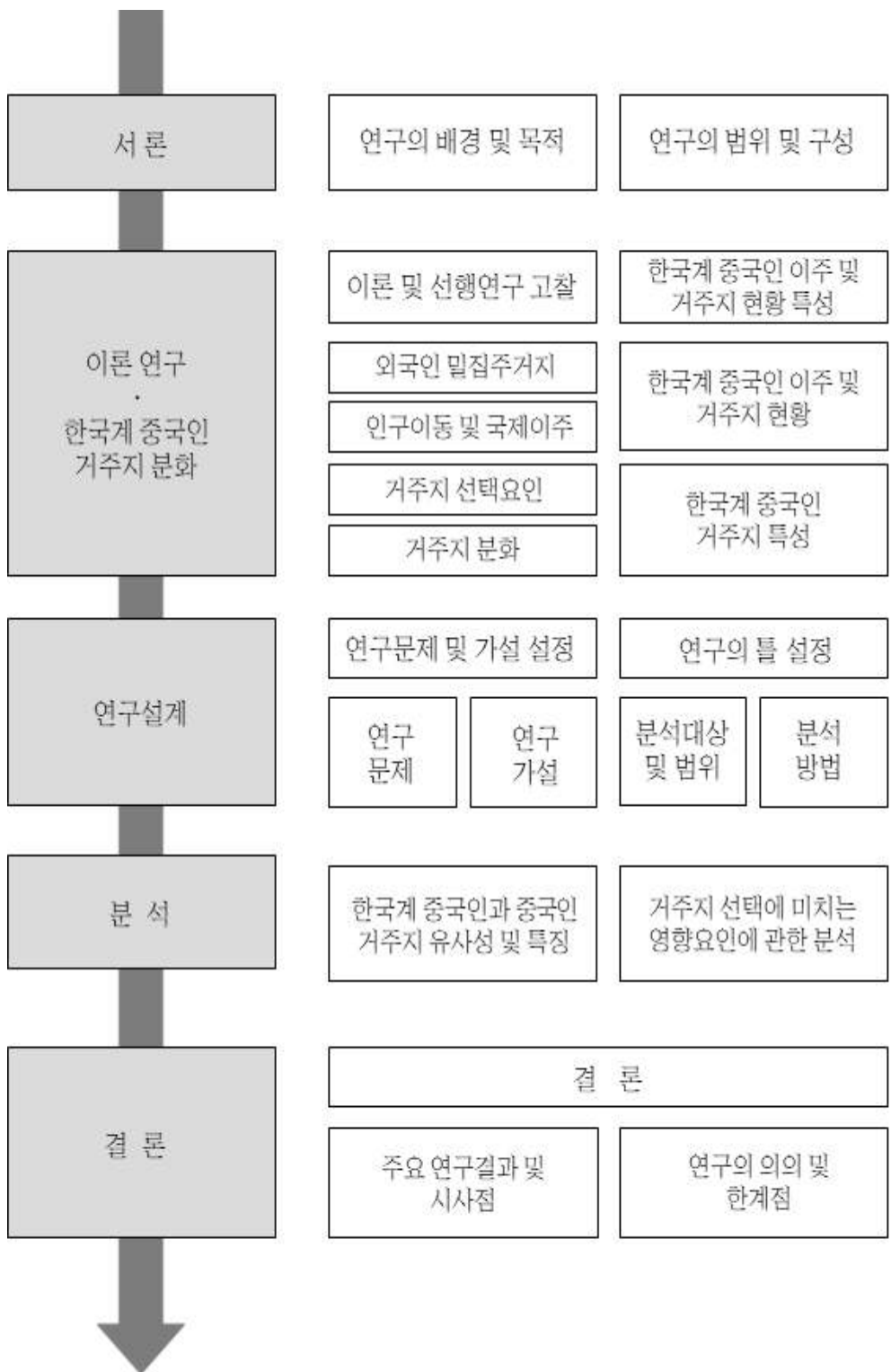


그림2. 연구의 흐름도

##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2.1. 외국인 밀집주거지

현재 서울에 위치한 외국인 밀집주거지는 가리봉동, 대림동, 자양동의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 종로구 일본인 밀집주거지, 프랑스인 밀집주거지인 서래마을 등이 있다. 이처럼 주류사회에 동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주거지와 분리된 채 존재하는 주거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 밀집주거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다.

일반적으로 소수민족집단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상호네트워크로 구성된 공동체를 발전시킨다(박세훈, 2010). 이러한 공동체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이주민이 느끼는 불안정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외국인들의 생활공간 및 관련 인프라 등이 집적된 곳을 칭한다(Castles and Miller, 2009; Lin, 2005).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외국인 밀집지역을 정의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청에서 규정한 외국인 밀집지역은 관할 지역 내 등록외국인 3,000명 이상 또는 관할 지역 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2% 이상인 지역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하며 외국인 밀집지역이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정의는 점차 변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갑호(2007)에서 언급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정의를 차용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을 정의하고자 한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외국인이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않고 상호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발전된 공간으로,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에 동일 국가 출신자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면서, 음식점, 상점 등 연관 인프라가 형성되고 사교활동과 정보교환의 중심지로 기능하는 지역'을 말한다.

### 2.1.1. 관련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로 이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다. 외국인 이주에 대해 매우 폐쇄적인 정책을 시행해 오다가 2002년에 되어서야 영주권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OECD, 2013). 서구사회가 가지고 있는 영주권 및 국적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영주권 제도는 폐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의 숫자는 큰 폭으로 증가해 오고 있고, 외국인 밀집주거지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따라 이주자 집거지 특성에 관한 연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Castles and Miller(2009)는 외국인들은 국적별, 인종별로 모여 밀집지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Faist(2006)는 사회적 이주네트워크의 체계화 및 조직화에 의한 공간적 집중을 ‘초국가적 사회 공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이주민에게 유리한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고, 이주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Knox and Pinch(2009)는 외국인 밀집지의 역할을 ‘정체성 보존’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며 외국인 밀집 클러스터는 이주민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내부적 상호 지원기능을 담당하며 고유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류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적 토대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영민 외(2014)은 이주자 집단이 특정 공간에 모여드는 현상을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이 현상은 한편으로는 이주자 집단에 의한 자발적 응집과 자기 정체화의 결과로 해석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류집단에 의한 배척과 차별의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박경환 등 역(2012; 이용균·이현욱, 2012; 이용균, 2013)은 외국인 밀집거주지 내, 구성원들은 상호 의지하면서 가족, 이웃과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며,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새로 유입되는 이주자들에게는 정착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주류사회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해준다고 하였다. 서지수(2012)는

외국인의 국적, 유형에 따라 외국인 거주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여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 공간을 이해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1. 외국인 밀집거주지에 관한 선행연구

구분	분석내용
Castles and Miller(2009)	<p>사람들은 박해 및 갈등 회피, 새로운 기회 추구 등을 위해서 이주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이주한 외국인들은 국적별·인종별로 각자의 밀집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나 사회적 원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p>
Faist(2006)	<p>사회적 이주네트워크의 체계화 및 조직화에 의한 공간적 집중을 ‘초국가적 사회 공간(trans-national social space)’으로 규정하며 이는 이주민에게 유리한 사회 자원을 제공하고, 이주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p>
Knox and Pinch(2009)	<p>외국인 밀집지의 역할을 ‘정체성 보존’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외국인 밀집 클러스터는 이주민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내부적 상호 지원기능을 담당하며 고유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류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적 토대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p>
이영민 외(2013)	<p>서울시 내 이주하여 정착한 조선족과 한족 이주자 집단의 이주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문헌 자료,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공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한국계 중국인이 밀집한 서남부 지역과 자양동 일대 지역은 두 집단의 상호 필요성에 의해서 협력과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들이 가지는 민족문화의 상이성에 기인한 갈등도 내재되어 있는 독특한 이주자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p>

<p>서지수(2012)</p>	<p>급속하게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밀집 거주지 형성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 내 변화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학술연구 및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관한 정책은 국적별, 민족별 다양성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정책 방향이 변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p>
<p>박경환 외(2012)</p>	<p>외국인 밀집주거지는 외국인이 주류사회에 적응하는데 생기는 문제점의 해결책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외국인 밀집 주거지는 흡인국에 이주한 외국인에게 고국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해소하도록 하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외국인 밀집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p>

## 2.2. 인구이동 및 국제이주

### 2.2.1. 인구이동

한정된 교통수단으로 인해 과거에는 지역적으로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비약적으로 발달된 교통수단으로 인해 과거의 이동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인구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이기도 하면서 결과이기도 하다.

인구이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인구의 규모 및 거리를 고려하여 분석한 최초의 연구자는 라벤스타인(Ravenstein, 1885)이다. 그는 인구이동은 단계적인 흡수과정을 통해 위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인구이동은 단계적으로 농촌-읍-소도시-대도시 순으로 이동하고, 이주자 대부분은 단거리 이동하지만, 장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업과 공업이 집중된 대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하였다(이희연, 2008). 라우리(Lowry, 1996)은 라벤스타인의 중력이론을 수정하였다. 그는 인구의 규모와 거리만을 고려한 제약 함수 외에 경제적 지표를 변수로 추가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학적으로 인구이동을 설명하였다. 라우리는 사람들은 임금수준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이를 센서스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정창무, 2007). 토다로(Todaro, 1969)는 노동자들은 특정 지역의 소득증가를 기대한다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즉, 도·농간의 노동인구 이동은 도·농간의 임금 격차나 실업률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노동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기대소득이 해당 지역의 평균소득을 상회할 때 그 지역으로 노동인구가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이현재, 2015). Todaro는 또한 농촌-도시 간의 인구이동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인구이동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전입국의 경우,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 부분을 다른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전출국의 경우, 이주하는 노동자는 좀 더 높은 임금을 기대하고 얻을 수 있으며, 전출국



내에서 발생하는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 존재한다. 이처럼 기대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력 이동이나 전입국 및 전출국 모두 이득이 되는 현상을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인구이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 2.2.2. 국제이주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이주가 어떠한 배경에서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제이주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은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이진영, 2011). 국제이주에 관한 이론으로는 압출-흡인이론, 이주체계론, 이중노동시장론, 이주의 신경제학론, 사회연계망론 등이 있다.

현재까지 이주에 관한 ‘일반이론’으로 일컬어지는 압출-흡인이론은 지리학자 라벤스타인에 의해서 창안되었다. 이 이론은 국제이주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인구증가, 낮은 생활수준, 높은 실업률 등이 발생한 송출지역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노동수요, 경제적 기회 정치적 자유 등이 있는 압출지역으로 이주한다고 판단했다. 압출-흡인이론은 부분적으로 인구이동을 설명하고 있으나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만 국제이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이주체계론이 등장하였다. 이주체계론은 국제이주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정치·사회 및 인구적 요인이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국제 이주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을 시도했다(전형권, 2008). 이중노동시장론(Dual Labour Market Theory)은 국제이주를 일으키는 요인은 수출국의 압출요인보다는 수용국의 흡인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현대노동체계 안에서 사람들은 수용국의 저임금 일자리의 인력 부족현상은 수용국으로 이민자들을 이동하도록 만든다고 한다. 이런 일자리는 임금의 평준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민자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이주의 신경제학론(New economics of migration theory)은 이주에 있어서 개인적 이유나 경제적 이유를 중요 이주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임금 격차보다는 가족의 유복한 생활을 위해서

이주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이론은 이중노동시장론과 반대로 송출국의 압출 요인을 더욱 강조한다. 사회연계망론(Social network theory)은 송출국-수용국의 이주패턴이 형성된 나라 간의 인구이동이 활발할 것을 시사한다. 이주민들이 형성한 사회연계망은 새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이주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본다. 일단 이주의 흐름이 발생하면 이는 지속적인 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나 경제변동으로 멈추기 쉽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 2.3. 거주지 선택요인

“일반적으로 도시 내의 주거지 결정에는 인구학적(가구특성·생애주기), 물리적(주택특성·거주밀도·기반시설 접근성), 사회적(사회계층·근린의식), 경제적(소득수준·지가·교육), 지리적(지형·입지·교통 편리성·직장과의 거리), 환경적(공원·쾌적성·조망권), 제도적(정부 정책·계획·개발사업)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기욱 외, 2010).” 거주지 선호나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만큼 요인들에 관한 연구도 오래 전부터 상당히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이정아, 2013).

우리나라와 달리 인구구성이 다양한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계층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계층 간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백인과 흑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두 집단의 직주이동과 주거지 격리 현상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Ellwood, 1986; Ihlanfeldt, 1993; Zax and Kain, 1996). 경제학에서는 계량기법을 이용하여 주거지 선택 모델을 제시하였다. Pinto(2001)는 이동성과 노동 시장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주거지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수학적 모형을 제시하였고, Deitz(1998)은 고용과 주거지 간의 관계를 모델로 만들어 경험적으로 증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Crane(1996)은 주거지 입지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택가격, 임대비용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요인들을 적용하여 모형을 제시하였다.

### 2.3.1. 관련 선행연구 고찰

외국인 이주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외국인 밀집지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 경관·경제 등에 여러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가 형성되는 지역의 특징이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해왔다. 이진영(2011)은 외국인 거주지 분포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산업, 주거 등 지역적 특성요인과 기존 외국인 거주지 등 외국인 관련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외국인 거주지 분포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장 및 공동체라는 것을 밝혔으며 아직까지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정주하기보다는 체류하고 있는 경향이 짙다고 하였다. 정지은 외(2011)는 외국인 거주지의 주거입지 결정요인이 국적별로 다름을 밝혔다. 외국인의 주택점유유형은 월세 및 사글세가 많으며 저소득층이 많은 외국인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북미 및 유럽출신의 외국인은 전문직·고소득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자녀교육환경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이정아(2013)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강화도 옹진구와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148개의 시와 자치구를 대상으로 외국인 거주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을수록, 고용밀도가 높을수록, 제조·건설업체 수가 많을수록, 아파트비율이 낮을수록 외국인의 거주비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윤경(2014)은 부산시와 진주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밀집이 심화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부산시는 제조업, 사글세·월세, 금융기관, 외국인학교 등이 변수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단독주택비율, 쇼핑문화시설, 보육시설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진주시는 제조·건설업, 사글세·월세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사회교육시설은 부(-)의 상관관계가 파악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정지은 외(2011)에서 밝혔던 것과 같이 국적별로 영향요인이 상이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2. 거주지 선택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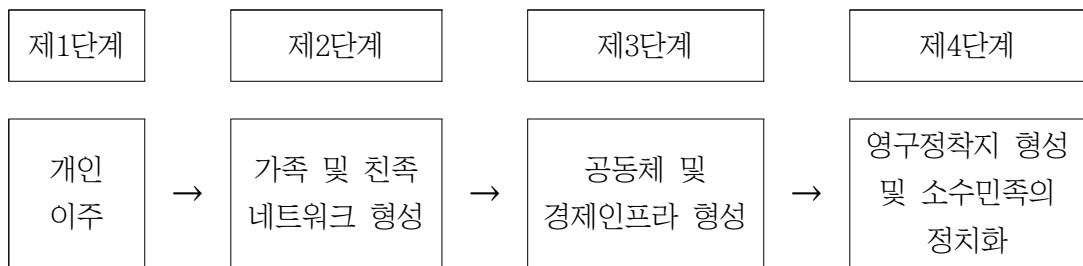
구분	분석단위	분석내용
이진영(2011)	수도권 64개 시·군·구	외국인 관련변수, 종사업체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외국인 거주지 영향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외국인은 직장 및 공동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까지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정착하기보다는 체류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정지은 외(2011)	수도권 66개 시·군·구	조선족, 중국인, 동남아, 북미유럽 출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지 선택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요인이 국적별로 차이가 나타남을 밝혔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거주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사자수, 인구, 고용비율, 월세거주비율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정아(2013)	전국 148개 시·자치구	제조·건설업체 수, 대학 수, 과거 외국인 거주 지역, 수도권 지역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전문서비스업 수, 주거지역 비율, 아파트 비율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거주지 선호요인을 파악하였는데, 외국인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인은 사회연계망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김윤경(2014)</p>	<p>부산시 209개동 진주시 21개동</p>	<p>국토 전반에 걸쳐 외국인 밀집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연구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에 문제점을 제기하여 부산·경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시에서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사글세월세, 금융기관 등의 변수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단독주택비율, 쇼핑문화시설, 사회교육시설에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파악되었다. 진주시에서는 제조·건설업, 사글세월세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사회교육시설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파악되었다.</p>
------------------	-------------------------------	---

## 2.4. 거주지 분화

경제성장과 문호 개방의 흐름 속에서 2005년부터 이민 유입국의 지위로 전환됨에 따라(이영민 외, 2014), 급속도로 외국인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유입이 계속되는 한, 외국인 밀집주거지의 수는 점점 증가할 것이며 이와 함께 기존에 없었던 성격의 외국인 밀집주거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stles and Miller, 1993). “첫째, 젊은 임시노동자들이 유인되는 단계, 둘째, 체제 기간이 늘어나면서 출신 지역별로 상호부조를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단계, 셋째, 이민공동체 중심의 조직, 상점, 관련 직업이 등장하고 수용국과 밀접해지는 단계, 넷째, 영구적인 정착지로 발전하며 수용국의 정책과 여건에 따라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혹은 정치적인 배제 속에서 영구적인 소수 민족으로 남는 단계이다<sup>4)</sup>”(박세훈, 2010).



자료 : 박세훈(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그림3. 외국인 밀집지역의 발전단계

우리나라의 이민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이주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의 역사가 긴 선진국과 같이 세대를 걸쳐서 외국인 이주지가 재생산되거나 정치화되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

4) 모든 외국인 밀집주거지가 반드시 4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지 않는다. 어떤 외국인 밀집주거지는 자신의 목소시를 내며 존재하기도 하고 주류사회에 물들어 밀집주거지의 성격이 열리는 주거지 또한 존재한다(박세훈, 2010).

하였다. 우리나라로 이주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형성된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태, 특징 또한 변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흡인국의 이주정책, 이주민의 국가적 특징에 따라 변화과정 또한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형성된 외국인 밀집지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에 대한 예측과 그에 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2.4.1. 관련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의 외국인 밀집주거지는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하면 밀집 주거지 형성 초기 단계에 그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나 조사도 외국인 밀집주거지 형성 자체에 집중되어 있다(방성훈 외, 2012). 즉, 대다수의 연구는 외국인 밀집주거지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주류사회에 분리되어 형성되고 있는가? 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다. 강민조(2003)는 외국인 거주지의 지역별·국적별 거주특성, 경관 특징, 거주지 선정요인을 고찰하였다. 외국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같은 국적의 외국인 밀집지가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따라 외국인 거주지가 형성되는 지역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박윤환(2010)은 주류사회와의 분리정도가 높은 외국인 거주지는 인천에 가까운 서쪽 지역과 서울 중심에서 가까운 지역들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과 거주지분리가 심한 지역이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신인철(2007)은 중국인(조선족), 일본인, 미국인의 거주지는 주류사회와의 공간적 균등성이 높은 반면에 기타 아시아권 국적의 외국인 거주지는 주류사회와의 공간적 비균등성이 높게 나타남을 밝혀냈다. 이진영(2011)은 1997-2009년 동안 외국인 특화지역 분포를 살펴본 후, 입지계수와 상이지수를 사용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 정도를 분석하였다. 수도권 내 내국인과 외국인간 거주지 분리정도는 심각하지 않으나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생산업체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거주지 분리가 심하게 나타남을 밝혀냈다. 임석희 외(2010)은 다른 연구와 달리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의 거주지 분포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했다. 전문직 이주자의 지리적 분포는 다른 외국인과 비슷하게 수도권, 영남권의 교통축을 따



라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밝혔다.

외국인 밀집주거지 분리는 이처럼 그들의 사회적·국가적·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주류사회에 동화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함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 및 분리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거주지 분화에 관한 선행연구

구분	분석단위	분석내용
강민조(2003)	서울시	<p>서울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의 지역별·국적별 거주 특성, 서울시 거주 외국인 집단주거지를 사례 지역으로 한 경관상의 특징 및 주거지 선정 요인을 고찰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는 국적별로 거주하는 지역이 뚜렷하게 차별화되며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요약하면, 외국인 집단거주지들은 점차 특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점차 확산되고 있다.</p>
박윤환(2010)	수도권 78개 시·군·구	<p>2009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의 거주지 분리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수도권 전체적으로 인천에 가까운 서쪽 지역들과 비교적 서울 중심에서 가까운 근교에 위치한 지역들에서 거주지분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과 거주지분리가 심한 지역이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밝혀냈다.</p>
신인철(2007)	경기도 시·군·구	<p>경기도와 부천시 사례를 통해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거주지 분리 현상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인의 거주지와 중국인(조선족), 일본인, 미국인의 거주지는 공간적 균등성이 높은 반면, 기타 아시아권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는 공간적 비균등성이 높게 나타났다.</p>

이진영(2011)	수도권 64개 시·군·구	1997년에서 2009년 동안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외국인 특화지역 분포, 상이지수를 사용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 정보를 분석하였다. 내국인과 외국인간 거주지 분리는 전체적으로 심각하지 않았으나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생산업체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거주지 분리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임석희 외(2010)	전문직 이주자 대상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의 국제 이주 배경과 국내 유입 현황 및 공간적 분포, 적응과 관련 정책 등을 고찰하였다. 전문직 이주자들의 지리적 분포는 다른 외국인과 비슷하였다. 그들은 영남권의 교통축을 따라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제 3 장 한국계 중국인 이주 및 거주지 현황과 특성

### 3.1. 한국계 중국인 이주 및 거주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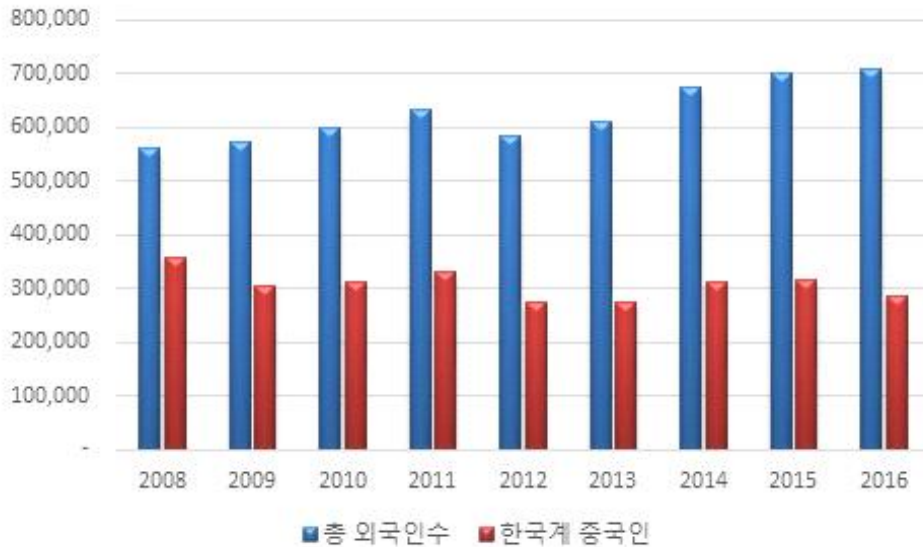
#### 3.1.1. 한국계 중국인 이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통계본부에서 ‘중국인’을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은 한국에서 중국 동포, 중국인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전자는 외국 국적을 소지하였으나 과거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한 동일민족이라는 의미로 국적보다는 ‘민족’의 동질성에 집중한 표현인 반면에, 후자인 ‘중국인’은 ‘국적’을 중심으로 한 명명법이다(이승은,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한국계 중국인’은 한국인과 동일한 한민족이나 중국국적을 소지한 재외동포로 정의한다.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한국으로의 유입은 1992년 한중국교 수립 이후 본격화 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념의 차이로 몇 십년 간 중국과 한국은 외교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박재영 외, 2016).” 2007년 방문취업제가 허용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가족 또는 친지가 있는 한국계 중국인뿐만 아니라 무연고 동포에게도 한국으로의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었다. 방문취업제는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 기회 확대 등으로 동포를 포용하여,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취지아래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법무부, 2007). 방문취업제는 재중동포임이 확인되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연고가 없어서 한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브로커에게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무연고 동포들도 한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다(김현미, 2009).

### 3.1.2.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 현황

2016년도 현재 수도권의 전체 등록외국인 수는 약 70만 명으로, 이 중 한국계 중국인은 40.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계 중국인은 2003년 이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취업관리제 및 고용허가제<sup>5)</sup>, 2007년 방문취업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계 중국인의 연도별 총 외국인수 중 차지하는 비율은 국내 경기 상황과 외국인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49.5%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2008~2016)

그림 4. 총 외국인 수 대비 한국계 중국인 수

한국계 중국인은 주류사회로 편입되기 보다는 특정 지역에 밀집 거주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서 정의한 ‘외국인 밀집지역’은 외국인이 3,0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 주민등록인구 중 2% 이상이 외국인으로

5)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구성되어 있는 지역을 칭한다. 다음 표 4는 수도권 시·군·구 중 외국인이 3,0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수도권 내 한국계 중국인 밀집거주지

지역	주민등록인구	한국계중국인	비율(%)*
서울시 광진구	357,215	6,934	1.94
서울시 동대문구	355,069	3,254	0.92
서울시 구로구	417,551	24,369	5.84
서울시 금천구	235,386	15,031	6.39
서울시 영등포구	370,613	28,279	7.63
서울시 동작구	400,997	6,175	1.54
서울시 관악구	506,851	11,390	2.25
서울시 송파구	657,831	3,683	0.56
인천시 부평구	549,716	5,619	1.02
수원시 장안구	296,479	3,004	1.01
수원시 권선구	358,393	6,027	1.68
수원시 팔달구	198,515	11,014	5.55
성남시 수정구	232,841	7,292	3.13
안양시 만안구	252,353	3,283	1.30
경기도 부천시	851,380	11,224	1.32
경기도 광명시	339,484	3,868	1.14
경기도 평택시	470,832	6,684	1.42
안산시 상록구	375,857	4,379	1.17
안산시 단원구	314,002	23,483	7.48
경기도 오산시	208,656	5,163	2.47
경기도 시흥시	402,888	17,158	4.26
경기도 군포시	284,890	4,028	1.41
경기도 김포시	363,443	3,251	0.89
경기도 화성시	640,890	7,355	1.15

\*비율(%) = 한국계 중국인 수 / 주민등록인구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2016)

방성훈 외(2012)의 연구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2016년 기준, 서울에서만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는 8개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와 성남시, 수원시 등으로 집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과거 중소기업이 밀집된 곳이나 그 주변 지역의 값싼 주택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안산·수원·화성 등 제조업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일자리 수요가 많은 지

역으로 밀집하는 경향을 보인다.

## 3.2.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 특성

3.1.2. 절에서 살펴보았듯, 한국계 중국인은 서울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계 중국인은 거주지에 관한 연구의 공간적 배경은 서울특별시가 대부분이다. 홍석기 외(2012)는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거주지는 분화기의 초기 단계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방성훈 외(2012)는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주거지들 간에 서로 다른 특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대상으로 주민의 내부 구성과 주거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분화기의 초기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주거지 중 가장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리봉동’, ‘대림동’, ‘자양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급격하게 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거주지 선택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 3.2.1. 가리봉동

‘가리봉동’은 서울시 내 가장 처음 ‘조선족 거리’를 형성한 곳으로, ‘조선족 거리’는 가리봉시장 삼거리부터 공단 오거리까지 300m에 걸쳐있다. 1980년 후반 산업구조조정으로 구로공단 내 많은 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한국인 노동자들이 살던 별집<sup>6)</sup>을 중심으로 극빈층이 유입되었다. 이후 1990년대 말, 한국계 중국인 노동자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을 이유로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조선족 거리’가 형성되었다. 현재는 기존의 한국인 시장과 조선족 상점이 병존하고 있지만 점차 조선족 대상의 상가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주류 한국인들이 살고 있던 구로지역 일부에 조선족이 새롭게 이주자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양상이다<sup>7)</sup>(김현선, 2010).

6) ‘별집’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주로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보증금 없는 월세형태의 극빈층의 주거형태를 의미한다.



[자료출처] 1) '구로구, "가리봉동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대책강화', 동북아신문, 2017년 02월 02일자(<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78>)  
그림 5. 가리봉동 '조선족 거리'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리봉동'의 특징은 가리봉동에는 중국에 가족을 두고 경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단신부임형태의 한국계 중국인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값이 가장 낮은 가리봉동으로 정착하게 된다. 또한, 일자리를 찾아 전국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가리봉동은 일정 지역에서의 정착이 형태라기보다는 임시 주거지의 특징을 띠고 있다.

### 3.2.2. 대림동

가리봉동은 2004년부터 추진된 '가리봉동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인구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재개발로 인해 일자리와 집을 잃은 한국계 중국인은 가리봉동 인근, 대림동으로 이주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대림동은

7) 2015년 기존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이 무산된 가리봉동은 2013년에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아닌 주민 주도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일부인 '가리봉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대상으로 지정되어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가리봉동 이후의 가장 큰 한국계 중국인 밀집거주지로서 거듭나기 시작한다(서지수, 2012). 이를 시작으로 한국계 중국인은 대림동을 넘어서 점차 넓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밀집거주지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커뮤니티 분화단계에서 ‘확장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자료출처] 1) “‘차이나머니의 습격...’층수=계층인 대림동”, 노컷뉴스, 2015년 04월 27일자(<http://www.nocutnews.co.kr/news/4404296>)  
 2) “중국 본토 큰손도 ‘기웃’...대림동 차이나타운, 임대료 5년새 4배 급등”, 조선비즈, 2017년 01월 18일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8/2017011801132.html?Dep0=twitter](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8/2017011801132.html?Dep0=twitter))

그림 6. 대림동 ‘중국인 거리’

서지수(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 한국계 중국인이 대림동으로 이주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가족·친척 등의 지인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즉, 단신부임의 형태로 이주하는 가리봉동과 달리 대림동으로 이주하는 한국계 중국인은 해당 지역 일대에 거주하고 연고자에 의해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이주자들을 통해 한국의 문화에 대한 노출정도가 높다. 이에 따라 한국어 능력과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강하며 폐쇄성이 강한 가리봉동의 사람들 보다는 주류사회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한국계 중국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림동에서 나타나는 주류사회와의 분리도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대림동이 의미 있는 이유는 대림동이 가지는 장소성에 있다. 대림동은

한국계 중국인의 통로로서의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들에게는 안식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한국계 중국인과 내국인의 화합을 위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김현선, 2010).

### 3.2.3. 자양동



[자료출처]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where\\_main\\_search.jsp?cid=2401757&areaCode=1](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where_main_search.jsp?cid=2401757&areaCode=1)

그림 7. 자양동 ‘중국인 타운’

자양동은 가장 최근에 생긴 한국계 중국인 밀집거주지이며 강남 일대와 가까운 지역에 생겼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다. 자양동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은 가리봉동과 달리 단신부임의 형태가 아닌 2인 이상의 가족 또는 친족의 형태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의 소득은 가리봉동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으나 150~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도 존재<sup>8)</sup>하므로 가리봉동의 거주지역보다 더 나은 환경과 소득을 얻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8) 방성훈 외(2012)에 따르면, 가리봉동과 자양동 모두 100~150만 원의 소득구간이 61.8%, 58.0%으로 가장 많지만, 자양동은 가리봉동과 달리 200만 원 이상이 11.5%나 된다.

자양동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한국계 중국인과 원주민 사이의 완만한 관계이다. 자양동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은 다른 지역의 이주민보다 체류 기간이 길어 한국어가 능숙하고 한국문화에 상대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조민경 외, 2016)이다. 또한, SNS 등을 이용하여 주류사회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쇄적인 가리봉동, 대림동의 커뮤니티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를 통하여 보았을 때, 자양동은 한국인 원주민과 한국계 중국인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를 통한 수용하며 더 나아가 공생의 가능성을 제시(서지수, 2012)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차 다문화 사회가 될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 특성 차이 비교

특성구분	가리봉동	대림2동	자양4동
입지요인	일자리 접근성 / 저렴한 주거		
	구로, 강남, 안산 (쪽방)	강남 (반지하, 옥탑)	강남, 성수 (반지하, 옥탑)
거주자 성격차이	최초정착지, 단기, 단신	가리봉동에서 확장	2차 정착지, 적응계층, 가족
조선족 수	6,561	8,373	3,625
인구밀도	40.0%	38.5%	13.8%
주거분포	한국인과 분리	한국인과 혼재	

자료 : 이석준 외(2014),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 간 특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 3.2.4. 소결

이상으로 외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기 초기단계를 겪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거주지 중 ‘가리봉동’, ‘대림동’, ‘자양동’의 거주지 특징과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의 인문학적·사회학적 특징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는 다른 비한국계 외국인의 거주지<sup>9)</sup>보다 주류

사회에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다. 외국인 거주지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어가 가능한 한국계 중국인이 타 이주민과 달리 서비스업 등에 종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류사회에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 자리가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비한국계 외국인과 달리 주류사회와 가까운 거주지를 선택하는 한국계 중국인에게는 주류사회로부터 받는 정보 및 이점이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러한 이점이 실제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둘째, 한국계 중국인은 다른 비한국계 외국인들과 비교하면 한국에 대한 정주 의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정주 의식을 가진 한국계 중국인은 임시거주지의 성격이 강한 가리봉동을 떠나서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가까운 ‘대림동 또는 자양동’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생기는 정주 의식은 한국계 중국인에게 거주지 이전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일자리의 안정성 및 교통·주택 등의 주거환경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다른 비한국계 외국인들과 다른 거주지 선택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을 시사한다.

셋째, 소득 및 부가 축적된 한국계 중국인은 자신의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동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구로 및 영등포구 일대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의 유입과정에서 연구에 의한 연쇄이주 현상<sup>10)</sup>이 두드러지는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밀집거주지 분화단계 중 2단계

---

9) 정지은 외(2011)에 따르면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에 약 33%의 인구가 밀집해 있고, 서울 외곽의 안산시 단원구를 포함하면 약 39%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인 및 베트남의 경우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어서 한국계 중국인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더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국가들은 서울보다는 안산, 인천, 시흥, 포천, 양주, 파주 등의 외곽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0) 한국계 중국인이 이주지역을 선택하는 요인으로는 물가와 교통 등의 지역조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와 같은 연고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족·친척의 혈연관계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데 가장 큰 연결고리로 작용한다(김현선, 2010).

인 ‘친지 및 지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것처럼, 현재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는 ‘임시주거지’ 특징을 가진 밀집주거지와 ‘친지 및 지인 네트워크’의 특징을 가진 밀집주거지가 공존하며 각 거주지에 사는 한국계 중국인 간의 차이점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밀집거주지는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을 시사한다.

## 제 4 장 연구문제 및 가설 설정

### 4.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로 이주하기 시작한 지 20년 이상 된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타 이주민과 다를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3장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한국계 중국인은 타 이주민과 달리 우리와 언어 및 문화를 공유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며 한국에 대한 정주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한국계 중국인이 타 이민족과는 다른 거주지 분화의 형태를 보이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즉, 그들이 가지는 낮은 언어 및 문화장벽은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이러한 선택요인의 차이로 인해 한국계 중국인은 타 이주민과 다르게 거주지 분화기의 초기 단계를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문제 1. 낮은 언어 및 문화장벽은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국계 중국인들은 타 이주민들과 달리 서울 교외 지역보다는 서울 시내에 주로 거주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계 중국인은 대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에 도심 안에서의 생활에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것”(박재영 외, 2012)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낮은 언어 및 문화장벽은 한국계 중국인이 주류사회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에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주목적인 경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 이주민들보다 더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와 가까운 거주지를 선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문제 2. 우리나라에 대한 높은 정주의식은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나라에 이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이주하는 외국인 거주지는 ‘임시거주지’의 성격이 짙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sup>11)</sup>. 타 이주민과 달리 한국에 대한 높은 정주의식을 가진 한국계 중국인은 ‘임시주거지’의 특성이 짙은 초기 거주지에서 벗어나 좀 더 주거환경이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과 함께 서울 및 수도권에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가 점점 확대되고 분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주하는 외국인이라도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그들이 갖는 의식변화 및 한국의 이주정책 등에 따라 그들이 사는 거주지의 특성 및 모습은 변화하게 될 것이며 타 이주민과 다르게 우리의 동포로 인정되고 다른 이주정책 및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은 타 이주민과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거주지를 선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이진영 외(2012)은 외국인은 대부분 직장 또는 공동체 인근에 거주하는 것을 밝혔으며 이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정주하기보다는 체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 4.2. 연구가설 설정

제2장에서 서술한 이론적 논의와 제3장에서 서술한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특징에 따라 본 연구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기대소득은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에 양(+)<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Todaro 이론에 따르면, 도·농간 노동인구 이동의 결정요인은 도·농간의 임금격차나 실업률이라기보다는 노동공급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기대소득이 해당 지역의 평균소득을 상회할 때 그 지역으로 노동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위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타 이민족)은 자신이 기대하는 소득에 따라 거주지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언어 및 문화장벽이 높은 타 이민족은 기대소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이러한 정보가 있더라도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타 이민족은 노동수요가 높거나 자신의 민족이 밀집하여 있는 곳에 정착한다.

타 이민족과 달리 언어 및 문화장벽이 낮은 한국계 중국인은 정보를 취득하기에 용이하며 언어의 동질성으로 인해 일자리 구득이 쉽다는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기대하는 소득에 영향을 받아 거주지를 선택할 것이다.



연구가설 2. 다문화가구원 수는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득 및 부가 축적된 한국계 중국인은 가족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함께 거주한다. 주류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직장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주는 ‘친족 및 지인 네트워크’형성의 초석<sup>12)</sup>이 되며 이는 ‘대림동 및 자양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친족 및 지인 네트워크’는 ‘개인 이주’형태가 만연한 가리봉동보다 나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이와 함께 해당 거주지가 가지는 양호한 생활환경은 한국계 중국인을 끌어들이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친족 및 지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미 정착한 한국계 중국인의 가족 및 친지가 입국하여 동거하거나 한국 내에서 가정을 이루어 정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가구를 이루어 특정 지역에 정착하는 형태인 ‘다문화 가구원<sup>13)</sup>’을 ‘친족 및 지인 네트워크’형성의 대리변수로 지정하였다.

12) 대림동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인 친족과 지인은 국내로 이주하는 중국 국적인에게 동거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대림동 거주를 유도하고, 자신과 친족 또는 지인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중국 국적인을 대림동으로 이주시킨다(이정현 외, 2015).

13) 다문화 가구는 정의상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내국인이 포함된 가구이다. 전국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 가구의 2.2%가 다문화 가구이다. 다문화 가정을 이룬 외국인(귀화자 포함)의 출신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이 10만 3000명(35.1%)로 가장 많다. 베트남(21.1%), 중국(20.3%)이 뒤를 이었다.

## 제 5 장 연구의 틀

### 5.1.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분화기의 초기 단계를 겪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이 거주지 선택 시,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집단을 측정한 종속변수의 선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거주기간에 따라 단기 체류 및 등록외국인으로 구분된다.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특정 거주공간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통계자료 상 정확성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종속변수는 한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표하는 ‘등록외국인 수’로 정하였다. 등록외국인 수는 구득할 수 있는 가장 최신자료인 2016년의 조사 자료를 이용했으며, 거주지 선택요인에 관한 자료는 등록외국인 수 조사가 실행된 직전 해인 2015년의 자료를 투입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외국인 거주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1년 등록외국인 자료를 사용하여 시간적 차이를 두었다.

표 6. 분석의 대상 및 범위

구분	출처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 분포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수도권 64개 시·군·구	2016년
중국인 거주지 분포			
거주지 선택요인	통계청 조사 자료		2015년, 2011년

## 5.2. 분석자료

### 5.2.1. 분석 자료의 구성

분석에 사용된 등록외국인 수를 포함하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1960년부터 현재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별·국적별 단기 체류 외국인 수 및 등록외국인 수, 그리고 불법체류자 수 등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국적별·지역별로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국계 중국인에 관한 조사는 2009년 이전까지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 중국인)의 형태로 조사해오고 있었으나 이후,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을 분류하여 조사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체류 기간 별·체류자격별·지역별로 분류한 조사결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거주공간을 형성한다고 판단되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지역별·국적별 등록외국인 수를 종속 변수로 선정하였다.

표 7. 분석 자료의 구성

구 분	자료 설명
종속변수 (외국인 거주지 분포)	등록외국인 수(2016년)
산업적 설명변수	주민등록인구 종사자 수
주거환경 설명변수	월세가구 비율 공시지가
외국인 관련 설명변수	등록외국인 수(2011년)
한국계 중국인 특수성 설명변수	기대임금 다문화 가구원 수

## 5.2.2. 설명변수의 구성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 분포라는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 변수군은 크게 산업적 설명변수, 주거환경 설명변수, 외국인 관련 설명변수 그리고 한국계 중국인의 특수성을 대변하는 설명변수의 네 분류로 나누어 투입하였다. 한국계 중국인의 특수성에 따른 거주지 선택요인 차이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투입한 산업·주거환경·외국인 관련 설명변수를 투입하여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이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공통적인 요인의 영향 정도와 그들이 가지는 문화적·민족적 특수성에 의한 선택요인의 영향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주지 선택에 대한 산업적 설명변수로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우리나라로 이주한 한국계 중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대표하는 종사자 수를 투입하였다. 전국 사업체와 종사자 수를 조사하는 전국 사업체 조사를 이용했으며 조사 내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및 도·소매업<sup>14)</sup> 종사자 수를 투입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지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는 주로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빌라이며 주거점유형태는 월세가 대다수다<sup>15)</sup>. 주류사회에 가까이 사는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공시지가가 낮은 곳에서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설명변수는 인구·주택조사 내의 월세가구 비율, 공시지가를 이용하였다.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한 외국인은 자국의 민족들이 모인 집거지로 이주하여

---

14) 전국 사업체 조사는 산업분류코드 9차를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분류코드 중 대·중·소분류 중 대부분류를 기준으로 종사자 수를 분류하였다. 제조업(C : 10~3), 도매 및 소매업(G : 45~47), 숙박 및 음식점업(I : 55~56)

15) 방성훈 외(2012)는 “가리봉동은 쪽방으로 개조된 단독·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90.0%로 가장 많다. 자양동 역시 원룸형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지만(61.4%), 다세대(20.0%), 연립주택(12.9%) 등에도 다수 거주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파악할 때, 외국인 거주지의 환경은 매우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재현된 고국의 분위기를 통해 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자국의 사람들이 밀집된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련 설명변수는 기존에 조성된 외국인 밀집지를 의미할 수 있도록 2011년도 등록외국인 수를 이용하였다.

한국계 중국인의 특수성 설명변수의 경우, 제4장에서 설정한 가설에 따라 '기대임금'과 '다문화 가구원 수'를 이용하였다.

2015년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제조업(43만 4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8만 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17만 9천 명), 건설업(8만 6천 명)순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대임금 산출 시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의 임금을 외국인 노동자의 대표임금으로 삼았다.

'다문화 가구원 수'는 2015년 다문화 가구원 수 조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한국계 중국인은 수도권 내 다문화 가구원 수 중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산정된다. 통계자료 상 국가를 기준으로 나눈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국적 구분 없이 총 다문화 가구원 수를 사용하였다.

위의 변수를 이용하여 한국계 중국인이 가진 특수성이 그들의 거주지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표 8. 분석변수 구성

구 분	변수명	설명
종속변수	등록외국인 수	2016년 수도권 시·군·구 등록외국인 수 (한국계 중국인 · 중국인)
산업적 설명변수	주민등록인구	수도권 시·군·구 주민등록인구(만 명)
	종사자 1	숙박·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종사자 수
	종사자 2	제조업 종사자 수
주거환경 설명변수	월세가구 비율	2015년 월세가구 / 2015년 총가구
	공시지가	2010년 공시지가(십만 원)
외국인 관련 설명변수	외국인 거주지	2011년 인구 100명 당 등록외국인 수 (한국계 중국인 · 중국인)
한국계 중국인 설명변수	기대임금	제조업 임금(만 원)×고용률*
	다문화 가구원 수	2015년 인구 100명 당 다문화 가구원 수

\*기대임금의 경우, 2015년 광업·제조업 조사에서 제공하는 수도권 시·군·구 제조업 임금을 대표임금으로 정하였으며, 고용률은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 5.3. 분석의 흐름 및 방법

#### 5.3.1. 분석의 흐름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주거지 분화기 초기 단계를 겪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 선택요인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먼저 단일년도인 2016년의 등록외국인수와 2015년의 64개 수도권 시·군·구별 주거지 선택요인 자료를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산업적·인구·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해당 분석을 통해 변수별로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가설1과 가설2를 검증한다. 이후 한국계 중국인과 같은 국적이며 사회적·문화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요인과 비교를 통해 한국계 중국인이 가지는 특수성에 따른 거주지 선택요인이 중국인과 어떻게 다른지 파악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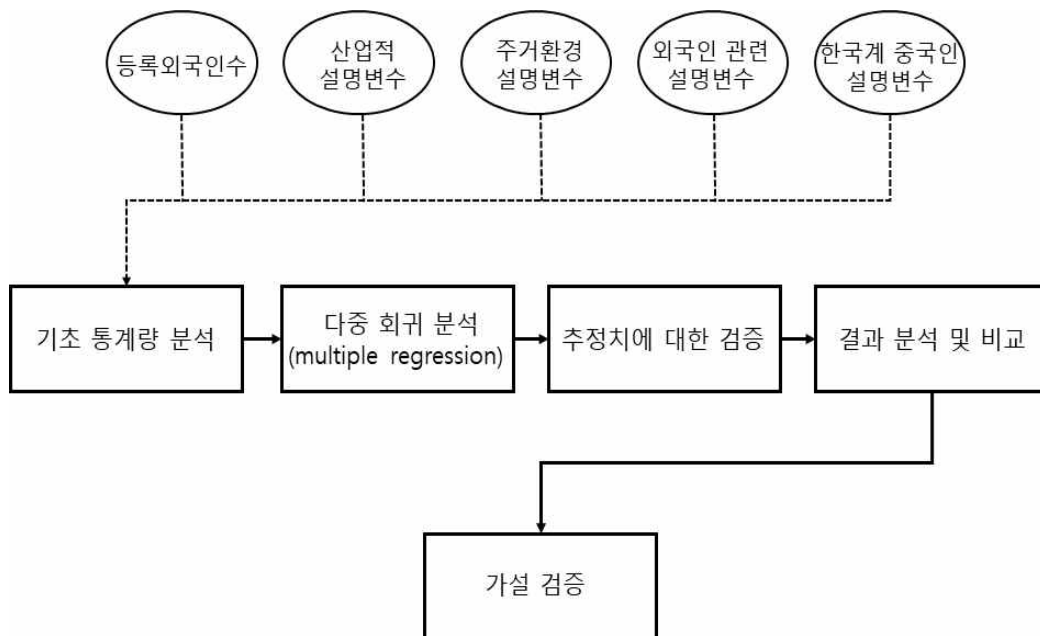


그림 8. 분석 흐름도

### 5.3.2. 분석 방법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에서 ‘회귀(regression)’란 용어는 19세기 프랜시스 갤턴이 키 큰 선대 부모들이 낳은 자식들의 키가 점점 더 커지지 않고, 다시 평균 키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고서 발견한 개념이다. 이를 통계학 용어로 ‘평균으로의 회귀(regression toward mean)’라고 한다.

기본이 되는 회귀분석은 하나 이상의 독립변인(들)이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 변인이 얼마나 변할 것인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즉, 하나 이상의 독립변인(들)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계 분석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회귀분석은 종속 변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독립 변인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후, 특정 독립변인(들)이 하나의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 즉 특정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간의 인과성을 밝히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예측 변인과 결과 변인이 유사 등간 수준 이상 데이터인 양적 데이터일 경우이다.

#### 1) 단순 선형 회귀분석

단순 선형 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은 하나의 독립 변인이 하나의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는 통계 분석 기법이다. 이 분석의 기본 목적은 예측 변인으로부터 실제로 측정한 결과 변인의 데이터에 가장 근접한 변인 Y값을 추정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단순 회귀분석의 경우 하나의 독립변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예측할 수는 없다. 이 회귀모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Y_i) = \hat{Y}_i = a + bX_i$$

단순 회귀분석의 핵심은 변인 X와 변인 Y의 관계 속에서 잔차의 변화량을 최소화하는 회귀모델을 구하여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변인 Y값을 추정할



수 있는 최적의 선형 회귀선을 도출하는 것이다.

## 2) 다중 회귀분석

실제로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Y값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인의 개수가 한 가지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개 2개 이상의 독립 변인들이 결과 변인에 영향을 주며 이에 따라 회귀분석을 이용하는 분석들은 2개 이상의 독립 변인이 하나의 결과 변인에 통계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지에 관심을 둔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특정한 예측 변인이 결과 변인에 고유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다중 회귀분석을 실행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중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은 앞서 언급한 단순 회귀분석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형식과 같다. 즉, 독립 변인 및 종속 변인 모두 양적 데이터일 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 회귀분석 모델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예측 변인들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곤 단순 회귀분석과 동일하다.

$$Y_i = a + b_1X_{1i} + b_2X_{2i} + \cdots + b_kX_{ki} + e_i$$
$$E(Y) = \hat{Y}_i = a + b_1X_{1i} + b_2X_{2i} + \cdots + b_kX_{ki}$$

단순 회귀분석은 분석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집단에 가장 유사한 결과 변인에 대한 예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다중 회귀분석은 종속 변수 예측뿐 아니라 특정 설명 변인과 종속 변인간의 인과성 또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분석모델이다.

## 제 6 장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와 언어 및 문화를 공유하는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요인이 타 이민족의 거주지 선택요인과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타 이민족의 거주지 선택요인과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요인 간의 비교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밀집거주지는 출신 국가별로 다른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민족성, 이주민들의 신분 등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갖게 되기(서지수, 2012) 때문에 한국계 중국인과 타 이민족을 비교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범하고 있는 민족별·지역별 다양성을 무시하는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다.

한국계 중국인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한국계 중국인의 집거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들의 집거지 주변에는 중국풍의 경관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계 중국인은 중국인과 비록 민족적 배경이 다르긴 하지만 중국이라는 국가통치 단위 속에서 언어와 국가 정체성 등 상호 간의 동질적인 문화를 공유해 왔다(이영민 외, 2014).” ‘동족단합이론<sup>16)</sup>’에 따라 중국인은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로 이주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의 거주지가 함께 공존하는지 확인해보고 중국인의 거주지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제5장에서 설정한 모형을 다중회귀방식을 이용하여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요인을 분석해본 후 두 집단의 거주지 선택 영향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

16) 우리 사회에서 출신 국가별 외국인 집중거주지가 형성되는 요인에 대한 이론으로는 ‘동족 단합’과 ‘사회적 제약’이 있다. ‘동족 단합’을 요인으로 주장하는 연구는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동일민족의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에 의해 이주민의 흡민국 내에서 민족별로 서로 이웃하며 거주한다고 주장한다(정수열 외, 2014).

## 6.1.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거주지 유사성 및 중국인 거주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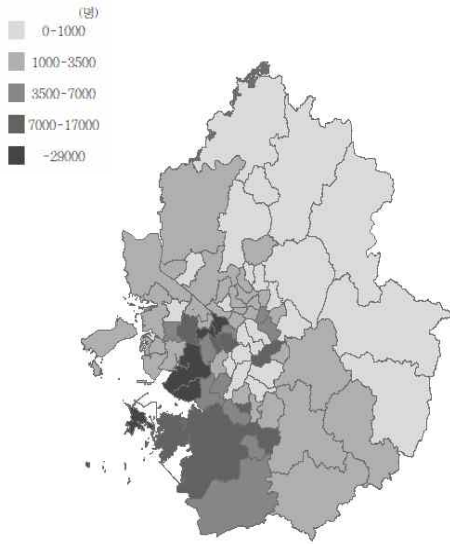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고찰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출신 지역별, 인종별로 모여 밀집지를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계 중국인은 같은 국가통치 단위 속에서 언어와 국가 정체성 등 동질적인 문화를 공유해 온 중국인과 밀집지를 공유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배경<sup>17)</sup>은 서로 상이하므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주거 밀집지를 공유하고 있는 두 집단이더라도 그들이 거주지를 선택하는 영향요인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두 집단의 거주지 선택요인을 분석한 후 차이가 나는 영향요인은 어떤 것인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두 집단의 밀집지 유사성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시·군·구별 2016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의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도권 시·군·구를 기준으로 등록외국인 수를 살펴본 결과, 중국인 밀집주거지(중국인이 3,0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는 서울에 10개소이며 중국인은 한국계 중국인보다 서울에 밀집하여 사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두 집단의 거주지 분포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도권과 서울특별시를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였다.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분포는 아래 [그림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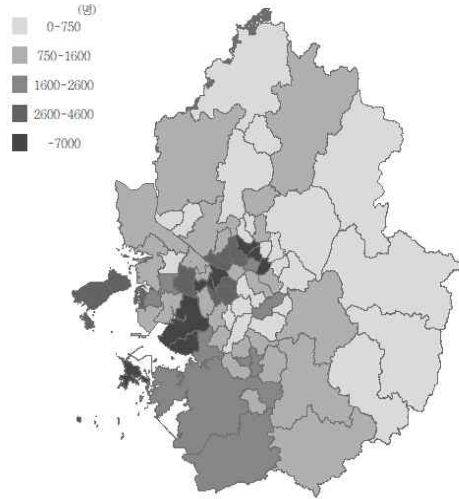
---

17) 재외동포(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동포)인 한국계 중국인은 주로 H-2비자와 F-4비자를 가지고 한국으로 이주한다. H-2비자의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초청받거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F-4비자는 시험을 통해서 취득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없고 3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한국계 중국인은 타 이주민에 비해 한국으로의 이주가 쉬우며 불법체류자가 될 위험요소가 적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한국으로 이주하는 중국인은 사전에 근무하고자 하는 회사와 컨택이 된 경우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가 발급된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비자발급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다수의 중국인은 관광 비자를 통해 한국에 이주하며 이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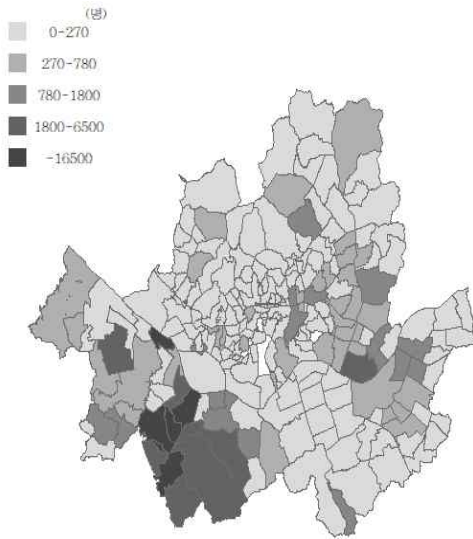
〈한국계중국인 거주지 분포(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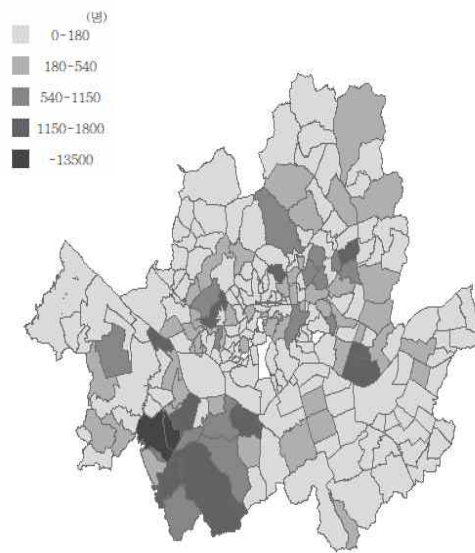
〈중국인 거주지 분포(수도권)〉



〈한국계중국인 거주지 분포(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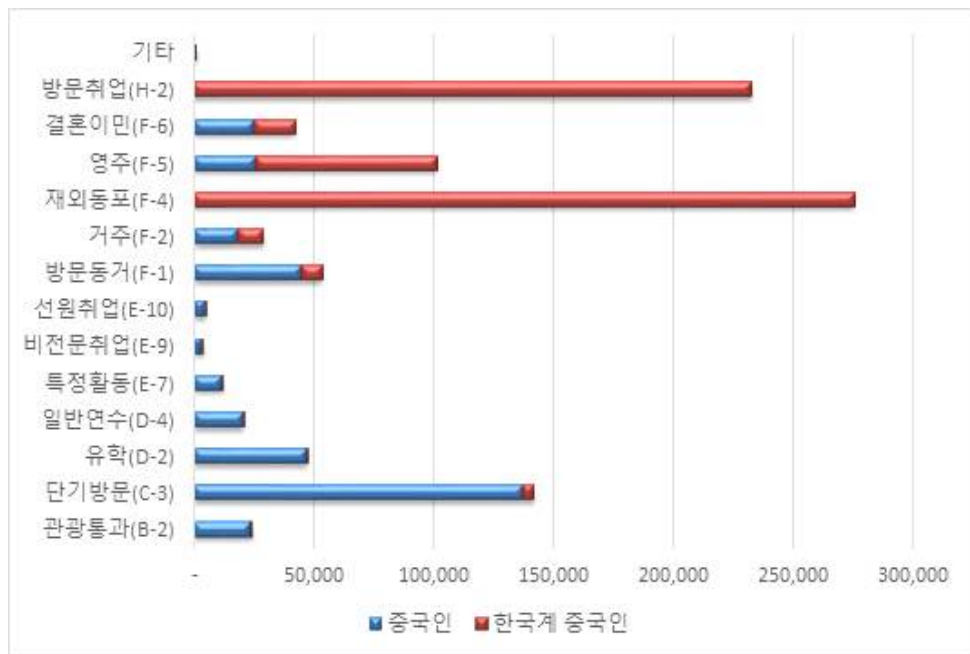


〈중국인 거주지 분포(서울)〉



자료 : 법무부, 2016  
그림 9.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 거주지 분포(2016년)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의 밀집거주지 분포는 유사한 듯 다른 양상을 보이며 두 가지의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계 중국인이 밀집한 지역에는 중국인이 밀집되어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같은 국적과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동족단합이론’에 의해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은 서로 거주지를 공유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설정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등록외국인 수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중국인 수는 한국계 중국인 수의 1/3에 해당하지만 그들의 거주지 분포는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 분포에 비해 매우 넓게 퍼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는 기존 공장 지역·제조업 공단 밀집 지역·중국인 거리 등에 집중되어있는 반면에 중국인의 거주지는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 서울시 강북구에도 밀집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의 직업별·경제적 능력별·이주목적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파악된다.



자료 : 법무부, 2016

그림 10. 2016년 체류자격별 외국인 수(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

[그림 10]에서 파악할 수 있듯,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은 체류자격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이주하는 한국계 중국인과 체류자격이 유사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주목할 점은 유학(D-2)의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인이 많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 전체 유학생은 10만4262명이며 그 중, 중국인 유학생은 6만 136명으로 중국인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60%를 차지하고 있다<sup>18)</sup>. 이들은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이주한 중국인과는 다른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들이 선택하는 거주지의 특징은 한국계 중국인과 거주지를 중첩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의 주거지와 다를 것이다<sup>19)</sup>. 이영민 외(2014)에 따르면 서울 강북의 중심부와 그 주변 지역에는 유학생 신분의 중국인 이주자 집단이 주로 거주하고 있으<sup>20)</sup>며 이들은 자국의 유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그림 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중국인이더라도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는 경제적·사회적 지위, 이주목적에 따라 구별되는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이주한 중국인은 한국계 중국인과 중첩된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으나 유학·기업투자 등의 목적을 위해 이주한 중국인은 이들과 분리되어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중국인은 한국계 중국인과 유사하지만 다른 주거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상의한 민족성과 사회적·국가적 동일성이 거주지 선택 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8) “[차이나 인사이드] 중국의 한국 유학 열풍이 한국에 ‘유학생 10만 시대’ 열었다.”, 중앙일보, 2017년 04월 12일자, (<http://news.joins.com/article/21464830>)

19)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직업을 가진 외국인 또는 유학생은 저소득 직업을 가진 외국인과 분리되어 생활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 직업을 가진 외국인이더라도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부를 쌓게 되면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분리되는 양상을 보인다.

20) 이영민 외(2012)는 “강북지역의 거의 모든 대학에는 한족 유학생들이 대거 재학하고 있으며, 따라서 강북지역의 한족밀집지역과 대학교의 분포는 그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 6.2. 거주지 선택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6.2.1.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 1) 등록외국인 수 및 주거지 선택영향요인의 기초 통계량

분석에 사용된 등록외국인 수는 2016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했으며, 주거지 선택영향요인의 경우 대다수 2015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자료의 기초 통계량은 [표 9]와 같다.

표 9. 등록외국인 수 및 주거지 선택영향요인의 기초 통계량

(단위 : 명, 원)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등록외국인 수 (한국계 중국인)	4,475	6,526	51	28,279
등록외국인 수 (중국인)	1,986	1,959	48	8,643
주민등록인구	396,593	245,416	45,725	1,184,624
종사자 수 1	40,694	31,914	3,678	189,780
종사자 수 2	26,957	33,666	380	191,593
월세가구 비율	0.245	0.061	0.103	0.399
공시지가	1,794,656	1,330,438	107,049	5,896,546
외국인 거주지 (한국계 중국인)	5,076	7,157	140	38,132
외국인 거주지 (중국인)	1,227	1,262	55	7,052
기대임금	1,502,984	501,925	699,795	3,999,426
다문화 가구원 수	7,953	5,718	506	28,986

## 2)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전술한 두 가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요인에 대한 산업·주거환경·외국인 관련·한국계 중국인의 특수성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한국계 중국인이 가지는 특수성이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산업·주거환경·외국인 관련 설명변수에 대한 효과를 우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0.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

변수명	계수	t값	VIF
log(인구)	1.284	8.56***	3.37
log(기대소득)	0.491	2.12**	1.44
월세가구비율	4.737	3.37**	2.13
log(종사자 수 1)	-0.203	-1.26	4.26
log(종사자 수 2)	0.151	1.83*	1.54
log(공시지가)	0.176	1.60	3.32
등록외국인수(2011)	0.077	2.29**	2.15
다문화가구원수	0.666	7.21***	3.02
절편	-1.775	-1.35	0.00
N=64, $R^2 = 0.89$ Adj $R^2 = 0.885$			

- 종사자 수 1 = 숙박·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종사자 수

- 종사자 수 2 = 제조업 종사자 수

\*\*\*p<0.01, \*\*p<0.05, \*p<0.1

먼저, 산업 관련 설명변수인 주민등록인구, 제조업 종사자 수, 주택 관련 설명변수인 월세가구 비율, 외국인 관련 설명변수인 등록외국인 수는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것과 같았다.



가설1에서 제시한 변수인 ‘기대임금’은 거주지에 등록된 한국계 중국인 수에 주는 영향력은 0.491( $p < 0.05$ )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4장에서 제시한 가설1인 ‘기대임금은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를 채택할 수 있다. 즉, 해당 지역의 기대소득이 높을수록 한국계 중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설2에서 제시한 ‘다문화 가구원 수’의 영향력은 0.666( $p < 0.01$ )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4장에서 제시한 가설2 또한, 채택이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다문화 가구원 수’와 ‘등록외국인 수’가 모두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주지만 ‘다문화 가구원 수’가 주는 영향력(0.666)이 ‘등록외국인 수’가 주는 영향력(0.077)보다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보았을 때, 한국계 중국인의 초기 정착지보다 2차 정착지로 한국계 중국인이 몰릴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더욱 커진다면 초기 정착지가 쇠퇴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중국인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먼저, 산업 관련 설명변수인 주민등록인구, 주택 관련 설명변수인 월세가구 비율, 외국인 관련 설명변수인 등록외국인 수는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 관련 설명변수인 제조업 종사자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중국인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 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연구도 있었고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연구도 존재하였다. 이는 중국인 이주자들의 체류자격이 다양하고 불법체류자 수도 타 이민족에 비해 많은 점<sup>21)</sup>에서 제조업 종사자 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잡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sup>22)</sup>된다.

21)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20만 명이던 불법체류자는 2016년 21만 4085명으로 집계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은데, 전체 불법체류자 중 중국인(중국 동포 포함)이 7만 311명으로 33.7%를 차지하였다. 이어 태국(21.2%), 베트남(12.9%), 필리핀(6.1%) 등이 순이다.

22) 등록외국인 수에는 불법체류자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인 수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표 11. 중국인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

변수명	계수	t값	VIF
log(인구)	1.034	5.99***	3.65
log(기대소득)	0.128	0.50	1.44
월세가구 비율	5.036	5.03**	2.25
log(종사자 수 1)	0.058	0.33	4.36
log(종사자 수 2)	0.038	0.41	3.01
log(공시지가)	0.109	0.89	3.44
등록외국인 수(2011)	0.811	4.55***	1.24
다문화 가구원 수	0.418	4.75***	1.60
절편	-0.829	-0.57	0.00
N=64, $R^2 = 0.84$ Adj $R^2 = 0.814$			

- 종사자 수 1 = 숙박·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종사자 수

- 종사자 수 2 = 제조업 종사자 수

\*\*\*p<0.01, \*\*p<0.05, \*p<0.1

본 연구의 가설2에서 제시한 ‘다문화 가구원 수’는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의 거주지가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와 겹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인은 한국에 이주 후,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한국으로 귀화하는 등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sup>23)</sup> 다문화 가구원의 기존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다문화 가구원 수’ 변수가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인 중 유학생,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과 이들은 등록외국인 수로 집계되며 이들은 단순노동직에서 일하는 중국인과 거주지가 분리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종사자수’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을 수 있다.

23)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집계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원 중 다문화 대상자(결혼이민자·귀화자)는 31만 7118명이다. 다문화 대상자는 한국계 중국 11만 94명(34.7%), 베트남 6만 6231명(20.9%), 중국 6만4074명(20.2%)순이다. 중국인 출신 귀화자는 3만2741명으로 귀화자 중 20.7%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2.2.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분석

### 1) 낮은 언어장벽 및 동일한 민족성이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

본 절의 목적은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더라도 해당 공간으로 이주하는 영향요인이 다름을 밝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5장에서 설정한 한국계 중국인 특성 변수인 ‘기대임금’과 ‘다문화 가구원 수’에 초점을 두고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과의 차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대임금’ 변수는 한국계 중국인에게는 영향(0.491,  $p < 0.05$ )을 주었으나 중국인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같은 공간을 공유하더라도 중국인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다면 한국계 중국인은 경제적 목적에 대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계 중국인이 가지는 특수성은 한국의 노동시장 내에서도 같은 국적의 중국인과 차이를 발생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24)</sup>.

*“김숙자 재한동포총연합회 대표는 “한국인과 조선족, 한족 순으로 내려가는 임금 계단이 있다. 한족들은 3개월만 체류할 수 있는 관광 비자를 발급받고 온 불법체류자가 많다 보니 임금을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족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나은 이유는 한국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년 단위로 갱신만 하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이어서 합법적 취업이 가능해서라는 게 김숙자 대표의 설명이다.”*

---

24) “가리봉 인력시장에 가면.. 한국인>조선족>한족 임금 계단이 있다.”, 이데일리, 2017년 6월 26일자, 유현욱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476006615965656&mediaCodeNo=257&OutLnkChk=Y](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476006615965656&mediaCodeNo=257&OutLnkChk=Y))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는 민족적 배경에 따라 중국인은 한국계 중국인보다 주류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차별을 경험한 중국인은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거주지의 경관 또는 자국민의 밀집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나 처우가 상대적으로 나은 한국계 중국인은 이주목적인 경제적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대임금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높은 정주 욕구가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가구원 수’는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모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등록외국인 수’를 ‘개인 이주’의 분화형태로 ‘다문화 가구원 수’를 ‘친족 및 지인 네트워크’의 분화형태로 정의하였다<sup>25)</sup>.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래의 [표 12]와 같다.

표 12. ‘다문화가구원 수’ 및 ‘등록외국인 수’ 영향요인계수

	다문화가구원 수	등록외국인 수
한국계 중국인	0.666***	0.077**
중국인	0.418***	0.811***

\*\*\*p<0.01, \*\*p<0.05

한국계 중국인은 2번째 분화과정인 ‘친족 및 지인 네트워크’형태의 거주지의 영향이 초기분화형태의 거주지 영향력보다 크나 중국인은 초기분화형태의 거주지 영향력이 2차 분화과정의 거주지의 영향력보다 큰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에 대한 정주 욕구가 높은 한국계 중국인은 ‘임시거주지’의 특징을 가진 거주지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지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달리 한국에 정주하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국인은 한국계 중

25) ‘개인 이주’의 분화형태는 한국에 정주하기보다는 체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주지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외국인 수’는 동일 국적인 등록외국인 수(2011년)를 사용하였다. ‘다문화 가구원 수’는 우리나라에 정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주지를 의미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국민보다 정주 욕구가 낮을 것이다. 이들은 유학, 단기 체류, 관광 등의 비자를 통해 이주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거나 해당 비자의 기한이 끝난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정주'를 위한 거주지보다는 자국의 민족들이 모여 있는 '임시거주지' 특징이 강한 거주지가 중국인이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원 수'가 중국인에게 0.418( $p < 0.01$ )의 영향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으나, 본 절에서는 한국계 중국인이 조성한 2차 분화 거주지가 중국인에게 어떤 점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이영민 외(2014)에서 찾을 수 있다.

*“불법체류 한족들은 한국정부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림동의 중국어 사용 상점과 서비스업소가 그들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 (중략) 물론 이들에게 대림동 지역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집거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더 친근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며, 이러한 점이 이들의 이주를 촉진한 또 하나의 요인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들의 불법체류 신분은 대림동에 조선족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려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략) 이러한 조선족과 한족의 상호적인 관계로 인해 불법체류 신분인 한족들에게는 대림동 지역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적절한 곳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그대로 재현한 것과 같은 경관을 가지는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는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인에게 심적 안정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은 중국인을 해당 거주지로 이주하도록 하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한다. 주류사회에 정주하기 위해 조성된 한국계 중국인의 2차 분화 거주지는 불법체류 신분인 중국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가릴 수 있는 안전지대로의 역할<sup>26)</sup>을 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이점<sup>27)</sup>은 한국계 중국인의 2차 분화 거주지로 중국인을 이주시키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의 거주지가 중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행한 ‘중국인 거주지 영향요인 분석’에서 한국계 중국인의 2차 분화 거주지를 의미하는 변수인 ‘다문화 가구원 수’가 중국인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6) 한국계 중국인이 중국어를 사용하고 중국인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또한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에 살면서 자신을 중국인이 아닌 한국계 중국인으로 위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중국인에게서는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7)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은 서로의 이점 때문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 2차 분화 거주지로 이주한 한국계 중국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도 이주하지만 자신이 쌓아온 경제적 부를 이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법체류 신분의 중국인은 임금이 타 중국인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중국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이점이 존재한다(이영민 외, 2012).

## 제 7 장 결 론

### 7.1.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거주지의 분화 초기 단계에 진입한 한국계 중국인 밀집거주지 선택요인에 관한 두 가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제시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2016년 등록외국인 수를 사용하였다. 한국계 중국인의 60%가 체류하고 있는 수도권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수도권 시·군·구의 등록외국인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주민등록인구(만 명), 종사자 수(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월세가구 비율, 공시지가(만 원), 등록외국인 수(2011년 기준), 기대임금(만 원), 인구 100명 당 다문화 가구원 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에 제조업 종사자 수, 월세가구 비율, 등록외국인 수, 기대임금, 인구 100명 당 다문화 가구원 수, 주민등록인구는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연구가설 1과 2를 검증하였다.

한국계 중국인은 우리와 언어 및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에 따라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과 달리, 이주목적인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이주함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언어의 사용은 한국계 중국인이 주류사회에 진출하는데 자신감을 부여하며 고용을 하는 한국인들 또한 한국계 중국인을 선호하고 하나의 노동력으로 대우해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계 중국인은 우리나라를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타 이민족과 달리 한국에 대한 정주 욕구가 높았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임시주거지’의 특징을 가진 거주지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본 국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여 정착할 수 있는 거주지를 선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외국인 밀집거주지 분화기의 초기 단계를 겪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은 같은 국적을 가진 중국인 이주민과 비교하였을 때, 다른 주거지 선택요인에 영향을 받아 거주지를 선택하고 그들의 거주지는 점차 분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거주지 선택 영향요인이 변함에 따라 개별 외국인 밀집주거지들도 여러 가지 변화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갈등<sup>28)</sup>을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는 우리나라로 이주하는 외국인이 주류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고 내국인 또한 주류사회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을 키우기 위한 내국인 및 외국인 교류정책 및 지원프로그램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7.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 7.2.1. 연구의 의의

외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기 초기 단계에 진입한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 선택요인에 관해 분석한 본 연구는 ‘한국계 중국인’이라는 특정 외국인 집단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들의 특수성에 의한 거주지 선택요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인 밀집거주지에 관한 연구는 외국인 밀집거주지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각 외국인의 국가적·문화적 배경에 따른 거주지 선택요인을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연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계 중국인은 우리의 동포이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성 및 거주지에 관한 연구가 많다는 점에서 그들의 문화적·국가적 배경을 파악하기에 수월한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무부

---

28)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이주민이 형성한 거주지는 선진국 출신 외국인 거주지와는 다르게 주류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존속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 대 내국인 간, 외국인 대 외국인 간에 사회·공간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박세훈, 2010).



에서 예상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로 이주하는 외국인은 점차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각 외국인이 가지는 문화적·민족적 특성이 그들의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특정 외국인 집단(한국계 중국인)의 특징을 고려하여 거주지 선택요인을 파악해봤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문화적·국가적 배경을 고려한 거주지 선택요인 분석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타 이주민의 특징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7.2.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된 한국계 중국인의 단편적인 생활 양상을 파악한 후 변수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한국계 중국인의 생활을 모두 대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약 10년간 한국계 중국인의 이주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의 거주지 선택의 영향요인은 시계열에 따라 변화해 왔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연구에서는 2016년을 기준시점, 즉 단편적인 시간 흐름을 통하여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 영향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른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 선택 영향요인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및 기존 선행연구에서 규명하지 못한 주거환경(교통, 주택 유형 등)이 어떤 영향을 주고 그들이 선호하는 주거환경은 어떤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국내논문]

- 김홍배·이정우, 2008, “인구구조 변화와 장래 노동시장의 변화 전망”, 국토 계획, 43(6): 142-144
- 강민조, 2003. “서울시 외국인 거주에 관한 공간 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윤경, 2014.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영향요인 분석”,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현미, 2009. “방문취업 재중 동포의 일 경험과 생활세계”, 「한국문화인류학회」, 42(2): 35-75
- 김현선, 2010. “한국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의식”, 「사회와 역사」, 87권: 231-264
- 박경환·류연택·정현주·이용균(역), 2012. 도시사회지리학의 이해(제6판), 시그마프레스(Knox, P. and Pinch, S., 2010, Urban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 Pearson Educational Limited, London)
- 박세훈, 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23(1): 69-100
- 박윤환, 2010. “수도권 지역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행정농촌」, 48(4): 429-453

- 박재영·강진구, 2016.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역과 거주 공간 확대에 대한 연구 - 가리봉동·구로동·대림동을 중심으로 -”, 「탐라문화」, 53권: 255-290
- 방성훈·김수현, 2012.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9(2): 39-68
- 서지수, 2012. “서울 대림동의 조선족 ‘통로(Portal)’로서 장소성 형성”, 「지리학 논총」, 58(58): 49-75
- 송기욱·김창석·남 진, 2010. “파워엘리트의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2): 35-49
- 신인철, 2007.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 경기도 및 부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 이석준·김경민, 2014.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 간 특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서울도시연구」, 15(4): 1-16
- 이승은, 2016. “서울시 ‘한국계 중국인’의 주요 거주 지형도와 경제활동”, 「중국과중국학」, 27(27): 173-194
- 이영민·이은하·이화용, 2014. “서울시 중국인 이주자 집단의 거주지 특성과 장소화 연구 : 조선족과 한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 17(2): 15-31
- 이용균, 2013. “이주자의 주변화와 거주공간의 분리 - 주변화된 이주자에 대한 서발턴 관점의 적용 가능성 탐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87-100

- 이용균·이현욱, 2012. “이주자의 공간의 지도화와 공간분포의 특성 : 국적과 체류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2(2): 59-74
- 이정아, 2013. “도시지역의 외국인 거주지 분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현·정수열, 2015. “국내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 : 서울시 대림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2): 304-318
- 이진영, 2011. “수도권에서의 외국인 거주지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재, 2015. “Harris-Todaro 모형에 의한 국가간 잠재적 노동인구 이동에 관한 실증분석 :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6): 421-431
- 임석희·송주연, 2010.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 현황과 지리적 분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275-294
- 전형권, 2008.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 디아스포라 현성의 통합 모형 접근”, 「한국동북아학회」, 13(4): 259-284
- 정수열·이정현, 2014. “이주 경로를 통해 살펴본 출신국가별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발달 과정 : 서울시 대림동 소재 중국 국적 이주민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48(1): 93-107
- 정지은·하성규·전명진, 2011.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선택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6): 117-129

- 조민경·장원호, 2016.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에 따른 지역사회 적응과정 연구 : 광진구 자양동 중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2): 225-241

[국내 보고서]

- 이갑호, 2007. “해외현장기획보고: 선진국 사례로 본국 내의 외국인 집거지 관리·활용방안”, 「국가정보원」
- 이희연, 2008. “인구이동 확장모형 개발 및 실증 분석”, 「국토연구원」
- 정창무, 2007. “통일 이후 노동인구 이동 분석”, 「2006년도 통일학 기초연구사업」,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 홍성기·김선자·이혜숙, 2010.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법무부, 2007. “방문취업제, 어떤제도인가”

[해외 문헌 · 논문 및 보고서]

- Carne, Randall. 1996. The Influence of Uncertain Job Location on Urban Form and the Journey to Work. Journal of Urban Economics. 39(3): 342-356
- Castles, S. and Miller, M. J., 1993(2009). “The Age of Migration :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The Guildford Press.

- Deitz, Richard. 1998. A Joint Model of Residential and Employment Location in Urban Areas. *Journal of Urban Economics*. 44(2): 197-215
- Ellwood, David T. 1986. The Spatial Mismatch Hypothesis: Are There Teenage Jobs Missing in the Ghetto. In *The Black Youth Employment Crisis*. Univ. of Chicago Press.
- Faist, T., 2006. “The Transnational Social Spaces of Migratio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Birmen Center on Migration, Citizenship and Development, Working paper
- Ihlanfeldt, Keith. R. 1993. Intra-urban Job Accessibility and Hispanic Youth Employment Rat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33(2): 254-271
- Knox, P. and Pinch, S., 2009. *Urban Social Geography : An Introduction*, 6<sup>th</sup> edition, Canada : Pearson Education
- Lin, Jan. 2005[1998]. “Globalization and the Revalorizing of Ethnic Places in Immigration Gateway Cities”. in Jan Lin and Christopher Mele (eds). *The Urban Sociology Reader*. Routledge
- OECD, 201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3*, OECD
- Pinto, Santiago M. 2002. Residential Choice, Mobility, and the Labor Market. *Journal of Urban Economics*. 51(3): 469-496
- Todaro. 1976. “Economic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Longman

- Zax, Jeffrey S. and Kain, John F. 1996. Moving to the Suburbs: Do Relocating Companies Leave Their Black Employees Behind?. Journal of Labor Economics. 14(3): 472-504

[기타 자료]

- 장택원(2012)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Hayes, A. F.(2005년) Statistical methods for communication science. 류성진 옮김(2011) 「커뮤니케이션 통계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jsp3/index/jsp>)
- 출입국관리사무소 (<http://immigration.go.kr>)
- 사업체 분류 코드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

## Abstract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foreigners residential choic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Residential Differentiation of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

Joo, Soo Hyun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globalization progresses, population shifts among countries occur frequ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predicts the number of foreigners will reach 3.2 million by 2030, accounting for 6.12 percent of the total. The prediction suggests that the currently densely populated foreign residential areas in Korea will either become highly dense or expand. Korea has a short history of migrating foreigners. So, the dense residential areas of the other ethnic groups except for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are in the early stages of formation. However, it is deemed that the growing number of foreigners' migration will form a different type of dwelling than the one currently formed, resulting in conflicts and social chan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behind choice of residents of Korean-Chinese that are entering the early stage of deferring their densely populated areas, unlike other different immigrants. The time range of analysis is 2016 and the spatial range is Seoul, Incheon, and the Gyeonggi area. First, this study analyzed about factors of choice of residence for Korean-Chinese and Chinese. The data on the number of registered foreigners provided by Korea Immigration Service was used. Next, this study measure the factors of choice for Korean-Chinese against that for Chinese. Description variables considered in the analysis include the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the number of workers that represents the industry description variable, the rent rate of households, the publicly assessed land prices that represents housing-environment variable, the number of foreigners as of 2011 is related to foreigners variable, and expected income,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per 100 people that explain the uniqueness of Korean-Chinese behavior.

As a result of multi-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number of registered foreigners in 64 c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s a dependent variable, the higher expected income, the higher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per 100 people, the higher the rate of monthly rent household, the higher the number of registered foreigners, and the higher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in manufacturing, the more likely Korean-Chinese are to appear in that region. As for Chinese, the higher the ratio of monthly rent household, the higher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per 100people, and the higher the number of registered foreigners, the more likely Chinese will be.

Secon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choice of residence of Korean-Chinese with that of Chinese, the expected wage that was

significant to Korean-Chinese but was not significant to Chinese. It can be interpreted that Korean-Chinese who speak the same language and have similar cultural backgrounds like us choose a residence which is to achieve their economic goal using their uniquenes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per 100 people is found to affect positive(+) for both Korean-Chinese and Chinese.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registered foreigners(2011) also has an influence on positive for both. In this study, 'The number of registered foreigners' is assumed to be a form of differentiation in 'individual migration' and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determined as a form of differentiation in the network of relatives and acquaintances. As the result of Korean-Chinese, the influence of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per 100 people' is 0.666 and that of 'the number of registered foreigner(2011)' is 0.077. In the case of Chinese, the influence of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per 100 people' is 0.418 and that of 'the number of registered foreigner(2011)' is 0.811.

Korean-Chinese with a high desire to settle in Korea are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a residence with a stable life than those with the characteristic of their temporary home. On the other hand, Chinese who have to go through strict procedures to stay in Korea will have a lower desire to settle down than Korean-Chinese. They should go to home after they meet their immigration goal or their immigrant visa expires. So, residential areas where Chinese people live together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temporary dwelling would have a greater influence on the choice of dwelling for Chinese than those which Korean-Chinese choose for setting down in Korea.

Combined with two analysis results, residence of Korean-Chinese is

undergoing a process of differentiating their residential areas faster than other different immigrants. They have chosen their habitats according to their ethnic and historical backgrounds, along with factors that appear in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they would have moved to dwelling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Also, Korean-Chinese share their habitats with Chinese immigrants who live with Korean-Chinese under the same government, 'China'. Even if they live in the same dwelling, they could see that they had different reason for choosing the area.

The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choice of residence for Korean-Chinese who undergo a process of differentiating their residential areas. The meaning of study is that it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a specific group of foreigners called Korean-Chinese and the factors in their choice of residence according to their uniqueness. However, this study do not represent all of the lives of Korean-Chinese because it identified the aspects of their daily lives as identified from previous literature studies. It is also limited in that it analyzed the impact of Korean-Chinese's choice. In future studies, analysis of how the impact of Korean-Chinese choice on their dwelling overtime has changed is needed. If future study can determine the influence of variables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traffic, type of housing etc.) not identified in this study or previou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residential choice factor will be identified based on the national and ethnic diversity of the immigrants.

**Keywords : Korean-Chinese, Settlement differentiation, Residential choice, Densely populated foreign residents**

***Student Number : 2016-21275***